



2018년 3분기 실적발표자료

## Disclaimer

---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였습니다. 그러나 현 시점에서 회사의 계획, 추정, 예상 등을 포함하는 미래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회사는 제반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ORANGLIFE 

# ORANGELIFE

## 2018년 3분기 요약

- ✓ 리브랜딩 캠페인의 성공적 시작 : ING Life → OrangeLife
- ✓ 신한금융지주, 오렌지라이프 지분 59.15% 취득을 위한 SPA 체결
- ✓ 상반기 부진했던 BA 채널의 저축 신계약 물량 회복
- ✓ 이익은 리브랜딩 비용 및 금융시장 영향(최저보증준비금 변동) 제외 시 증가
- ✓ RBC 비율 438%(직전분기와 동일)로 강력한 자본력의 경쟁우위 지속

01. 주요 경영 성과
02. 신계약 성장
03. VNB (신계약가치) 성장
04. VNB (신계약가치) 마진
05. 수입보험료 및 이익
06. 이원별 손익
07. 자산운용 성과
08. 준비금 / 부담금리
09. 효율성
10. 자본적정성
11. 브랜드 소개
12. 향후 실적발표 일정

## 01. 주요 경영 성과

	3Q 2018	3Q 2017	yoy	YTD 2018	YTD 2017	yoy
						(십억원)
신계약 APE	251.6	200.0	25.8%	538.3	526.7	2.2%
보장성 APE	79.5	80.2	-0.9%	246.7	222.7	10.8%
신계약가치 VNB	34.0	37.6	-9.6%	109.3	98.0	11.4%
수입보험료 <sup>1)</sup>	1,375.8	1,049.7	31.1%	3,465.4	3,098.7	11.8%
세전이익(투자실현손익제외) ORBT <sup>2)</sup>	97.4	112.4	-13.3%	315.0	336.3	-6.3%
당기순이익	81.4	92.2	-11.7%	265.1	273.6	-3.1%
당기순이익(일회성 비용 제외)	87.7	92.2	-4.9%	271.5	273.6	-0.8%
총자산	32,346.1	31,257.0	3.5%	32,346.1	31,257.0	3.5%
운용자산	25,800.8	24,483.7	5.4%	25,800.8	24,483.7	5.4%
운용자산이익률 <sup>3)</sup>	4.0%	4.1%	-0.1%p	n/m	n/m	n/m
자기자본	3,647.1	3,798.2	-4.0%	3,647.1	3,798.2	-4.0%
RBC 비율	438%	502%	-64%p	438%	502%	-64%p

주 1) 변액보험 포함

주 2) 조정세전이익(투자실현손익제외) = 세전이익 - 투자실현손익(금융자산 및 외화처분손익, 손상차손)

주 3) 조정자산이익률(12개월 누계기준):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한 운용자산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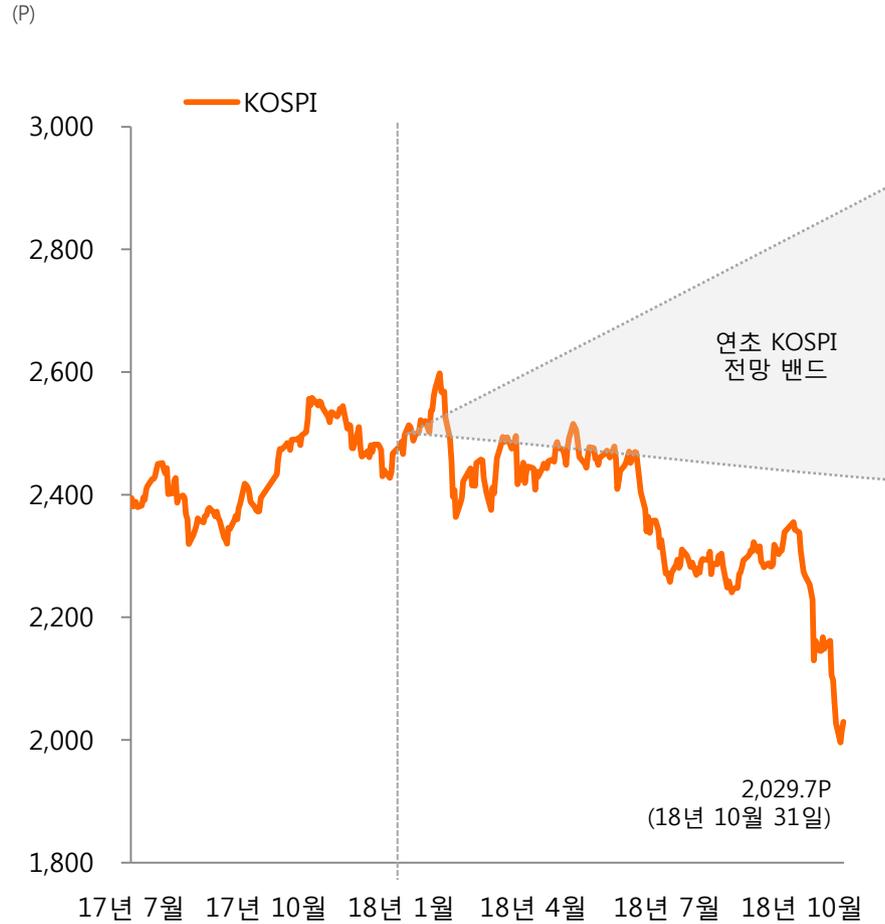
## 01. 3분기 주요 경영 성과

---

- ✓ 전체 APE는 BA채널의 저축성 물량 회복에 힘입어 25.8% 증가하였으나, 브랜드 및 대주주 변경에 따른 FC 채널의 일시적 영향으로 보장성 APE는 0.9% 감소
- ✓ VNB는 보장성 APE 정체 및 금리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.6% 감소
- ✓ 수입보험료는 BA 채널의 신계약 물량 회복에 힘입어 31.1% 증가
- ✓ 이익은 리브랜딩 영향 및 금리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손익 변동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
- ✓ 총자산 및 운용자산은 각각 3.5%, 5.4% 증가
- ✓ 자기자본은 전년동기 대비 4.0% 감소했으나, 직전분기 대비로는 증가
- ✓ RBC 비율은 438%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(직전분기와 동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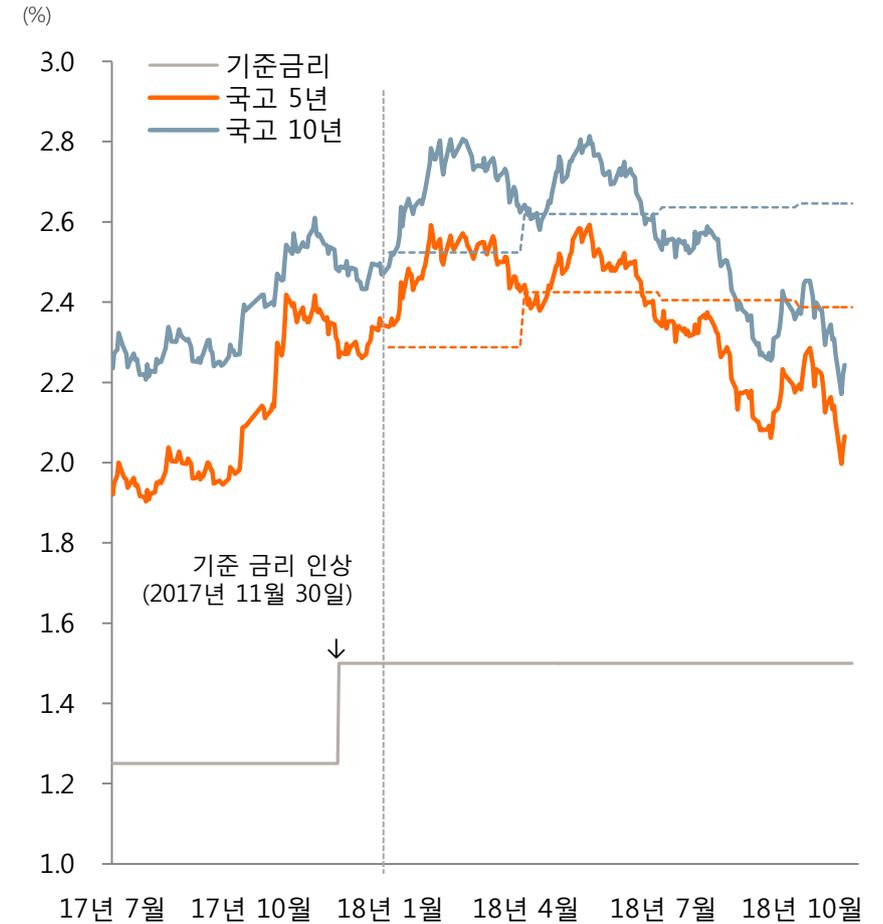
# 01.1 시장지표

## KOSPI: 연초대비 5% 하락 (9월말 기준)



주요 증권사의 2018년 KOSPI 전망 밴드 (2018년 전망 자료 참고)

## 시장 금리: 연초 예상 대비 크게 낮아진 금리 레벨



점선은 국고 5년, 10년 금리에 대한 2018년 분기 평균 전망치의 컨센서스 (2018년 전망 자료 참고)

## 01.1 시장지표

---

### 예상대비 부진한 국내 주식시장

- ✓ 당초 증권사들의 연시 전망에 따르면 올해 KOSPI는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었음
- ✓ 그러나, 미·중 무역 분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 확대로 3분기 이후 국내 증시의 하락세 심화 (3분기말 기준 KOSPI 연시比 5.0% 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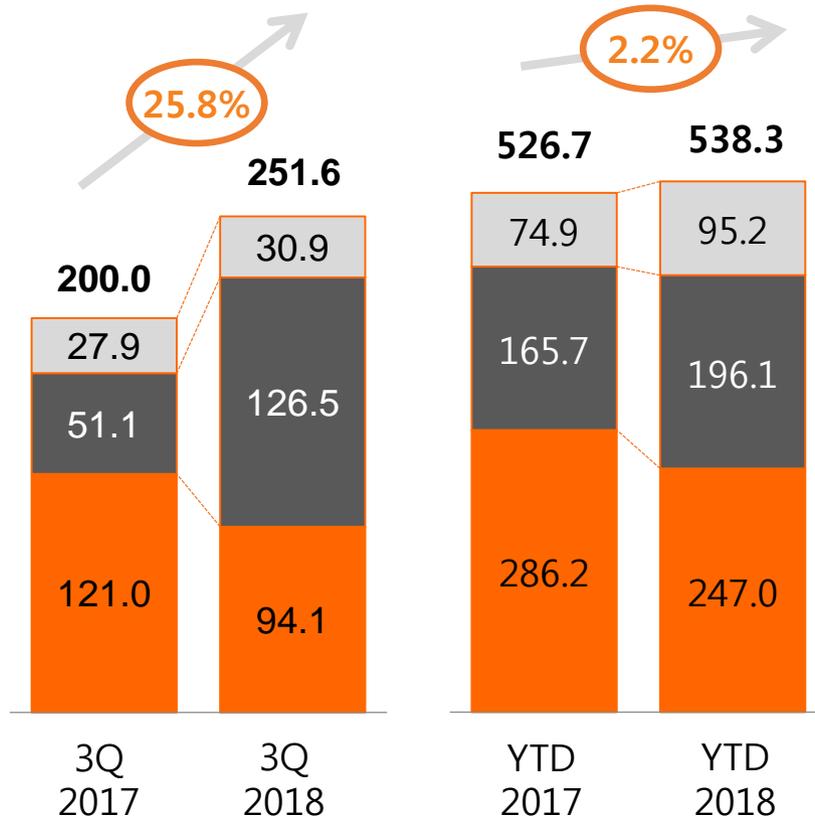
###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금리 하락

- ✓ 미국 국채의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고채 금리는 예상과 달리 하락
  - 2.7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국고 10년물 수익률은 2018년 3분기말 2.36%까지 하락
- ✓ 이러한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3분기 VNB 산출에 적용된 NIER (Net Investment Earnings Rate)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변액보증준비금 손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

## 02. 신계약 성장

### 신계약 APE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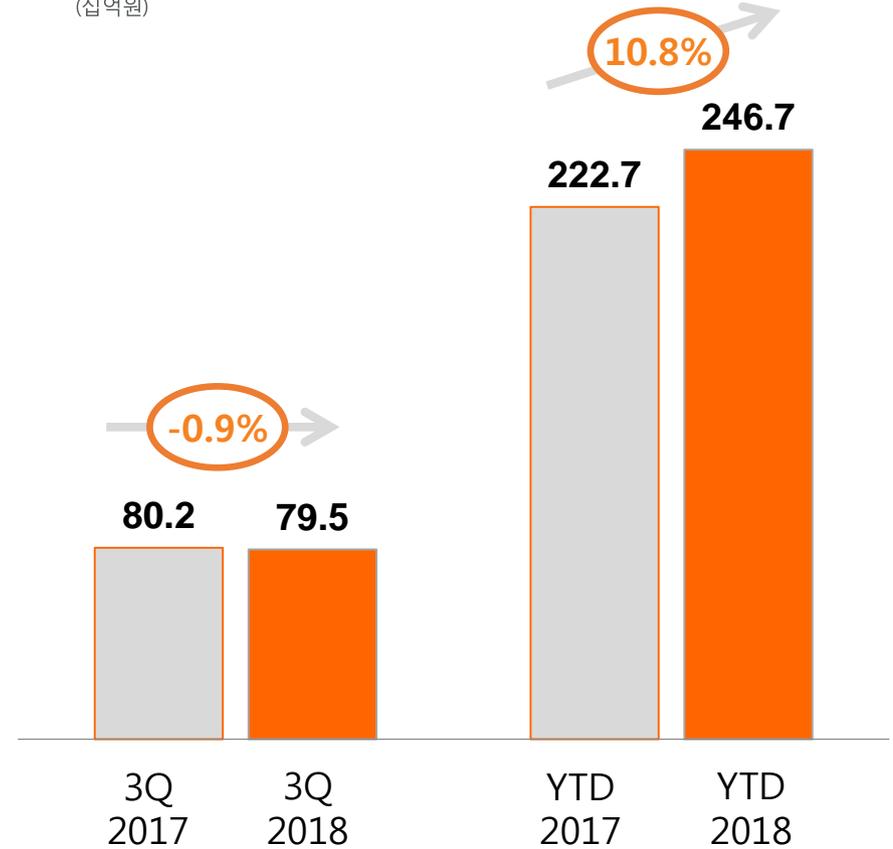
(십억원)



■ FC ■ BA ■ GA

### 보장성 신계약 APE 성장

(십억원)



APE: Annualized Premium Equivalent 신계약연환산보험료  
 FC: Financial Consultant, BA: Bancassurance, GA: General Agency

## 02. 신계약 성장

---

### 3분기 전체 APE 25.8% 증가 (+515억원)

- ✓ FC 채널은 보장성 믹스가 52%를 기록하며 전년동기(44%) 대비 개선되었으나, 저축 및 변액 상품 판매가 급락한 영향으로 APE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
  - 변액(연금/저축) 상품은 사업비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수수료 인하, 비과세 혜택 축소('17.4월 세법 개정 이후), 부진한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판매 급감
- ✓ BA 채널은 판매가 부진했던 상반기와 달리 3분기에 원화 저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YTD 기준 APE 성장률 18.3% 기록
- ✓ GA 채널 APE는 전년동기 대비 11% 증가한 가운데 보장성 상품의 비중 98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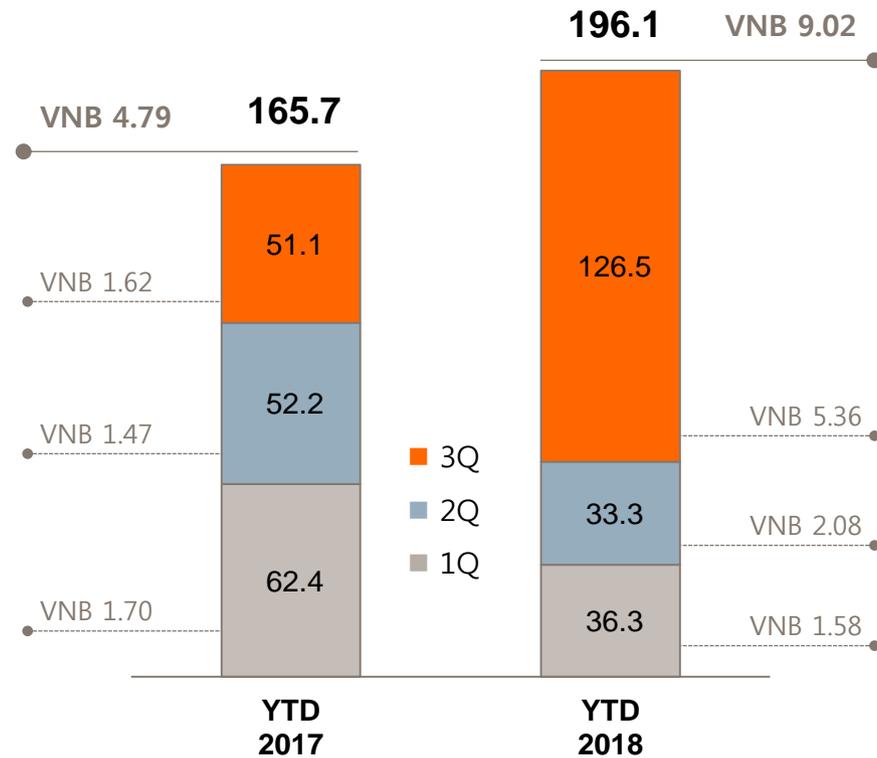
### 3분기 보장성 APE 정체, YTD로는 +10.8% 증가

- ✓ 9월초 리브랜딩 및 대주주 변경 소식으로 FC들의 영업에 부담이 가중되며 보장성 성장 모멘텀에 일부 부정적 영향 발생
  - 사명변경 및 대주주 변경에 대한 대고객 응대에 별도의 시간 및 노력 필요
- ✓ 리브랜딩 캠페인은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전국에 걸쳐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,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

## 02.1 신계약 성장 – BA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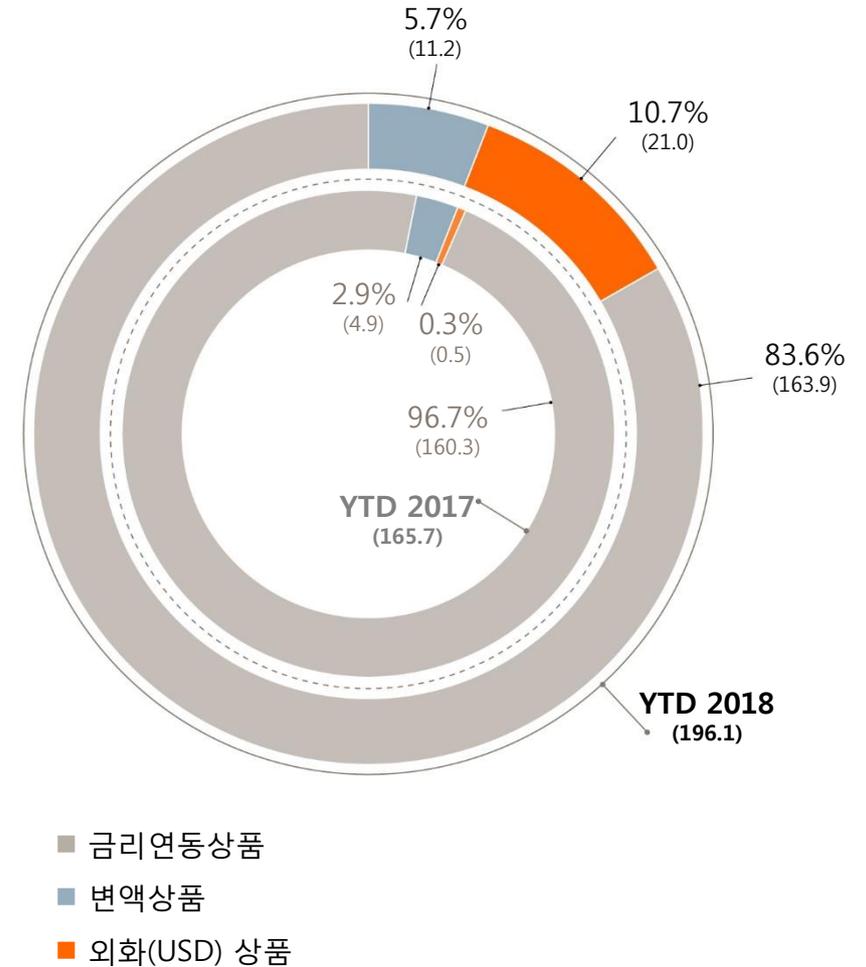
### BA 채널 APE

(십억원)



### BA 채널 상품별 APE 비중

(십억원)



## 02.1 신계약 성장 – BA채널

---

### 3분기 BA 채널 APE의 급격한 회복

- ✓ 3Q BA 채널 APE는 전년대비 약 150% 급증하며, YTD 기준으로 18.3% 증가한 1,961억원 기록
- ✓ 상반기에는 BA채널의 경쟁에서 벗어나 니치 시장에 집중했던 결과로 APE가 전년대비 39.3% 감소하였으나, 3분기에는 상반기까지 부족했던 물량 이상으로 신계약 판매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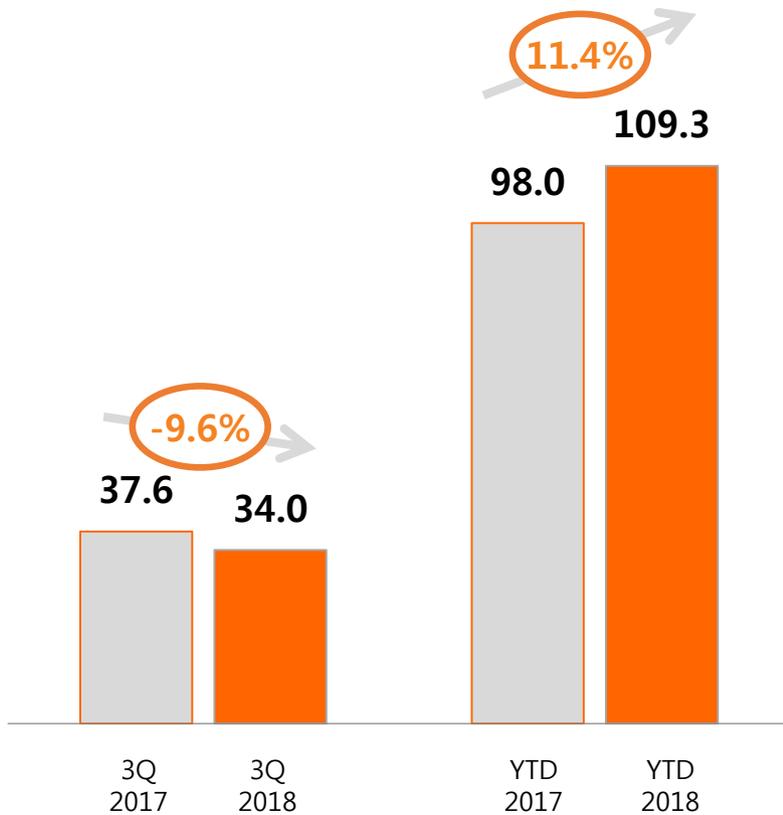
### BA 채널의 물량 확대 및 믹스 개선

- ✓ 외화(USD) 및 변액상품의 비중이 1~3분기 누적 APE의 16.4%를 차지, 전년동기 3.2%에서 큰 폭으로 확대
- ✓ BA 채널은 VNB 마진이 다른 채널 대비 낮으나, 물량이 증가할수록 고정비 관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, Solvency 관점의 부채 듀레이션 관리에도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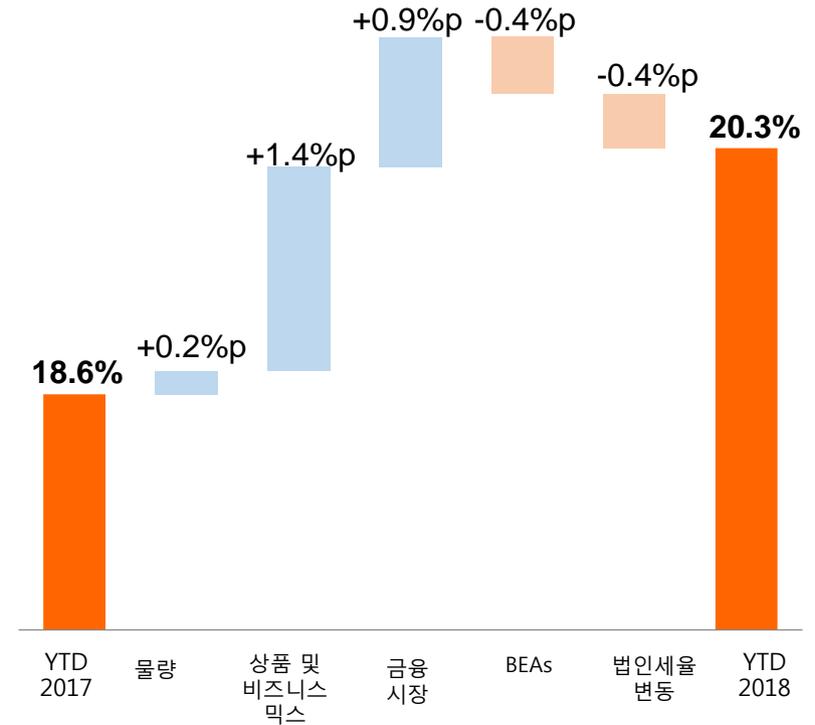
### 03. VNB (신계약가치) 성장

#### VNB 성장

(십억원)



#### +1.7%p VNB 마진 개선



VNB: Value of New business 신계약가치

BEA: Best Estimate Assumption

### 03. VNB (신계약가치) 성장

---

**3분기 VNB 전년대비 36억원 감소,  
YTD 기준 성장률도 +11.4%로 축소**

- ✓ FC 채널은 보장성 믹스 개선 불구, APE 물량 감소(주로 변액 판매 부진에 기인)에 따른 단위당 고정비 증가 영향으로 VNB 하락
- ✓ BA 및 GA 채널은 신계약 볼륨 확대와 함께 VNB 증가 (BA 및 GA 채널은 변액상품에 대한 의존도 미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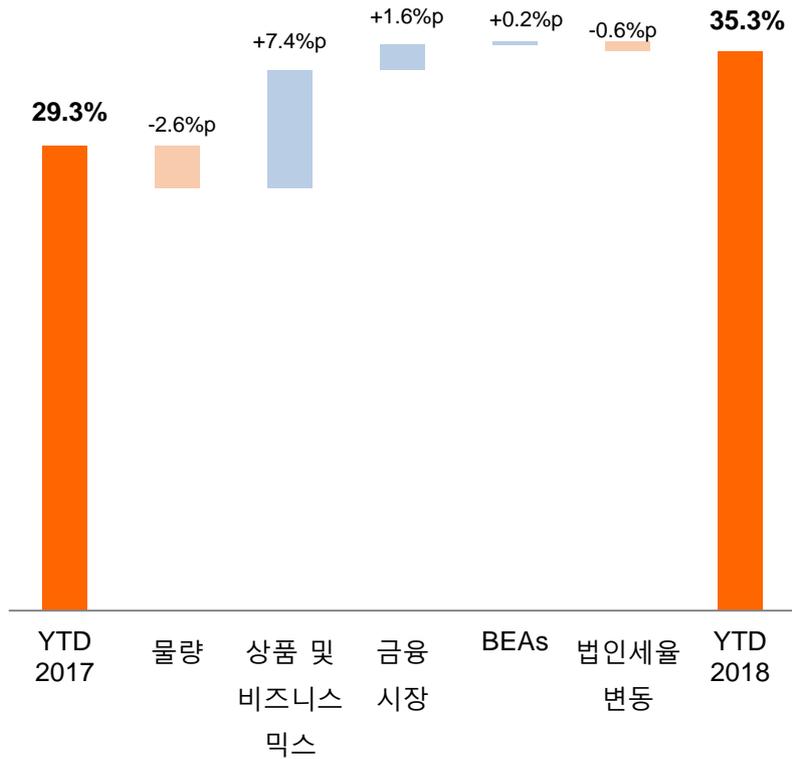
**YTD VNB 마진은 1.7%p 개선된 20.3% 기록**

- ✓ 물량 증가 및 상품/비즈니스 믹스 개선으로 VNB 마진 +1.6%p 개선
  - 3분기에 저마진 저축 물량이 확대되며 전체 마진 개선폭이 상반기 대비 다소 희석되었으나, 상반기까지 (-) 상태였던 물량 효과는 (+)로 전환
- ✓ NIER<sup>1)</sup>은 국고채 수익률 하락에 따라 직전분기 대비 15bp 하향 조정하였으나, YTD 기준으로는 여전히 평균 25bp 높은 상황 (NIER 등 금융시장에 따른 마진 변동 +0.9%p)  
[Historical NIERs: 2.90%(1Q17), 3.00% (2Q17), 3.15%(3Q17), 3.25%(4Q17), 3.35%(1Q18), 3.30%(2Q18), 3.15%(3Q18)]
- ✓ 2018년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VNB마진 -0.4%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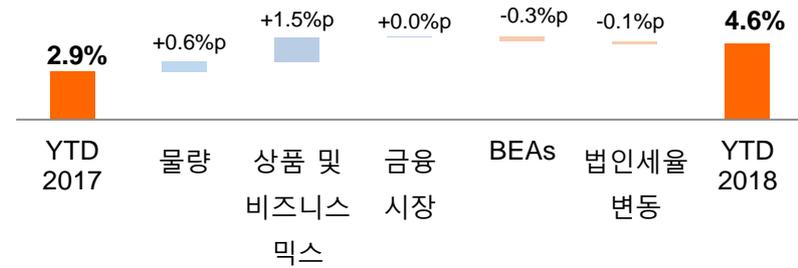
주1) NIER: Net Investment Earned Rate

### 03.1 VNB (신계약가치) 성장 – 채널별 마진 개선

#### FC 채널



#### BA 채널



#### GA 채널



## 03.1 VNB (신계약가치) 성장 – 채널별 마진 개선

---

### FC채널 VNB 마진 6%p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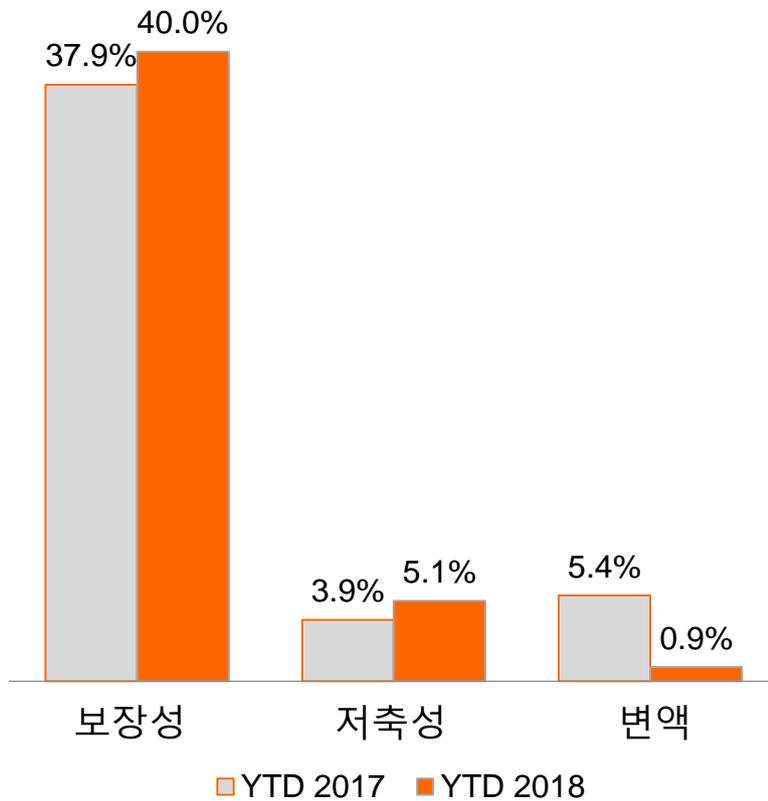
- ✓ FC 채널의 신계약 물량은 변액 및 저축 상품의 판매 감소로 하락 하였으나, 상품 및 비즈니스 믹스 개선 효과가 이를 상쇄하며 VNB 마진 향상

### BA 및 GA 채널 VNB 마진도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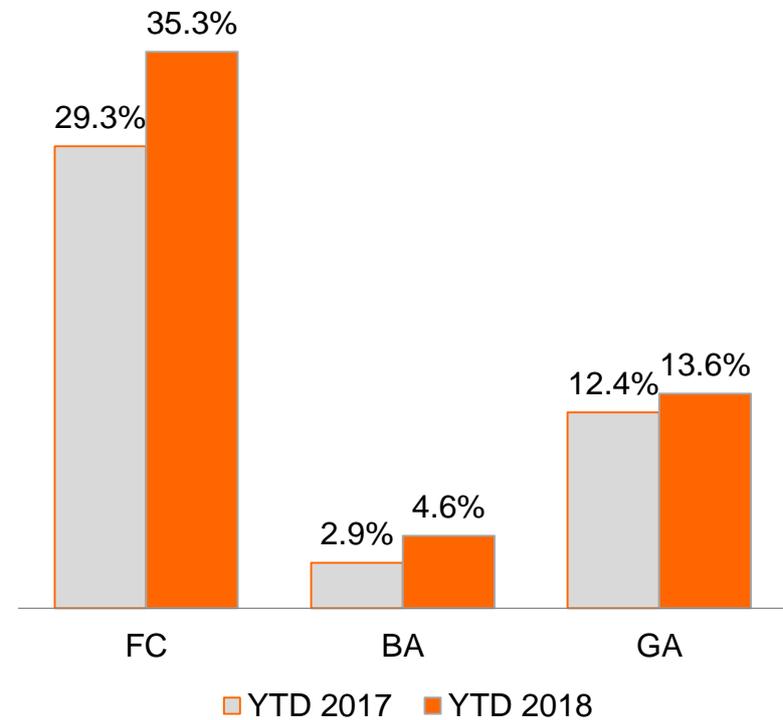
- ✓ BA 채널 VNB 마진은 물량 증가와 함께 USD 및 변액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에 힘입어 1.7%p 개선
- ✓ GA 채널은 물량 증가 효과가 VNB 마진 향상의 주된 요인
  - 다만, GA 채널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기 해약율을 반영한 2017년말 계리적 가정 (BEA) 변경으로 마진 개선 폭 일부 축소

## 04. VNB (신계약가치) 마진

### 상품별 VNB 마진



### 채널별 VNB 마진



## 04. VNB (신계약가치) 마진

---

### 상품별 VNB 마진

- ✓ 보장 및 저축 상품은 마진이 개선되었으나 변액상품은 마진 하락
- ✓ 변액연금은 사업비 축소('18.1월)에 따라 2분기부터 판매수수료를 축소 운영. 단, FC 채널 연례 프로모션 행사인 Summer Contest (7~8월) 지원을 위해 3분기에 한시적으로 동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나, 실제 판매량은 예상치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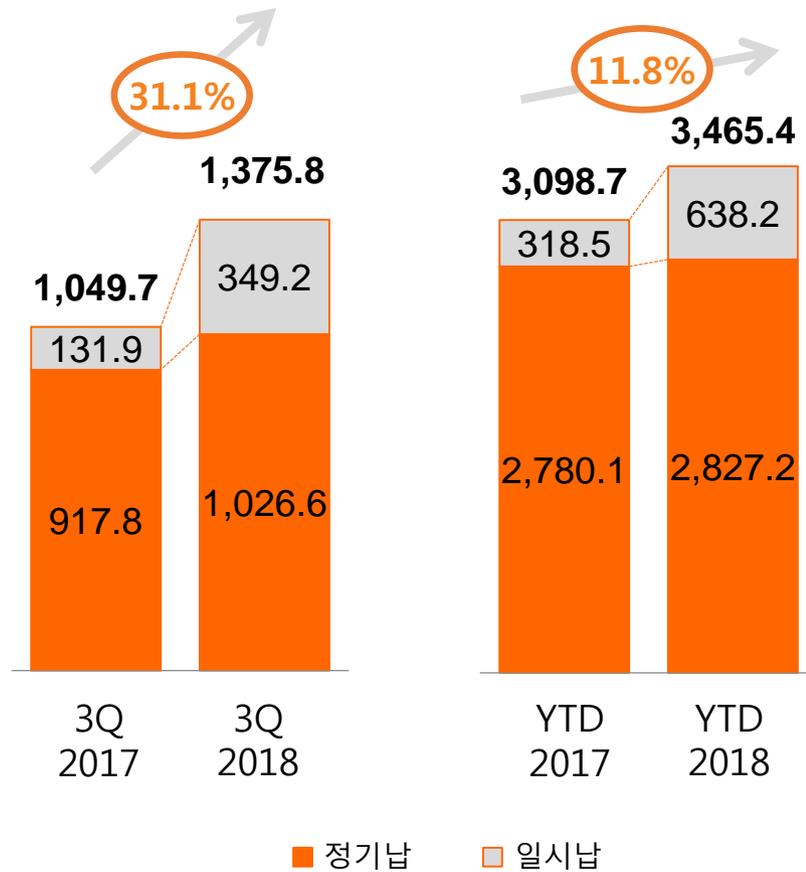
### 채널별 VNB 마진

- ✓ FC 채널 마진은 보장성 비중 확대와 1분기 출시된 오렌지 메디컬 상품 효과로 35.3%로 상승
- ✓ BA 채널은 3분기 물량 확대에 힘입어 YTD 기준 볼륨이 증가세로 전환, 규모의 경제 효과가 확대된 가운데 상품 믹스의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며 전년동기 대비 마진 +1.7%p 개선
- ✓ GA 채널은 APE 증가(YTD 기준 27%) 및 98%의 높은 보장성 믹스에 힘입어 VNB 마진 +1.2%p 향상

## 05. 수입보험료 및 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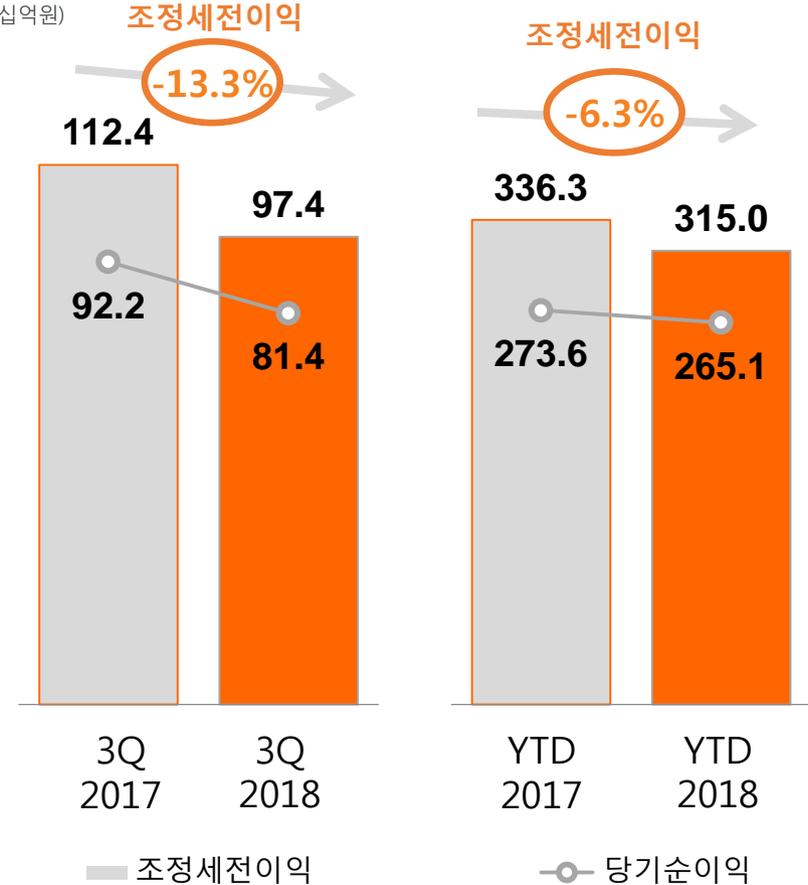
### 수입보험료

(십억원)



### 조정세전이익 및 당기순이익

(십억원)



수입보험료: 변액보험 포함, 퇴직연금 제외

조정세전이익 = 세전이익 - 투자실현손익(금융자산 및 외환처분손익 손상차손)

## 05. 수입보험료 및 이익

---

### 3분기 수입보험료 31.1% 증가

- ✓ 3분기 수입보험료는 BA 채널 물량 확대에 힘입어 정기납 +11.9%, 일시납 +164.8% 증가
- ✓ YTD 기준 수입보험료는 정기납 +1.7%, 일시납 +100.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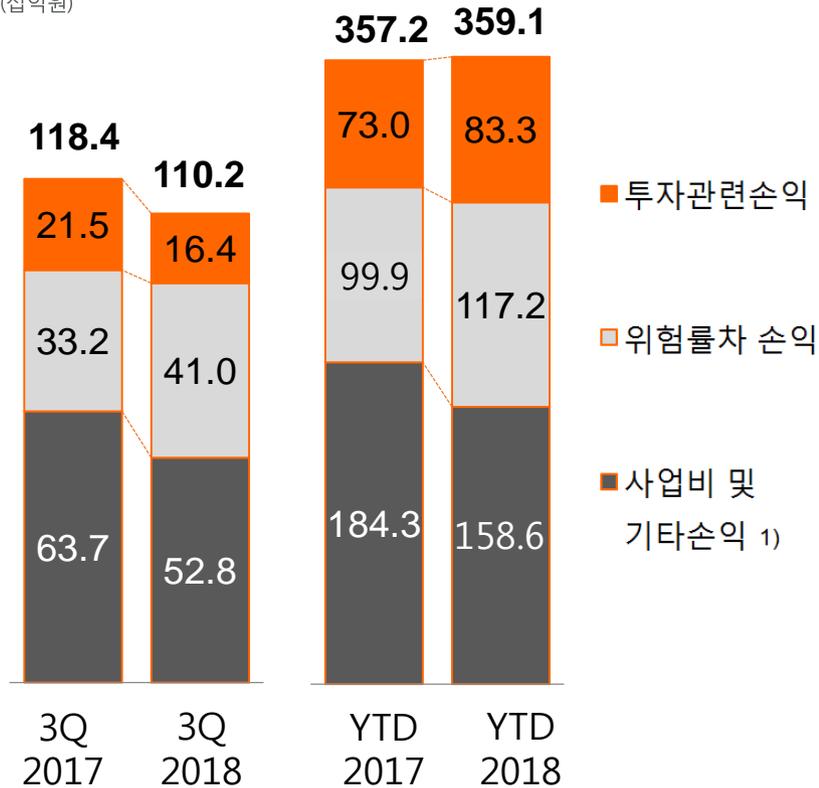
### 3분기 이익은 리브랜딩 비용 및 최저보증준비금 손익 변동으로 감소

- ✓ 3분기 조정세전이익은 -13.3%, YTD 기준으로는 -6.3% 하락
- ✓ 금리 하락 영향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최저보증준비금의 환입이 지연되며 전년동기 대비 -134억원의 손익변동 발생
- ✓ 3분기 리브랜딩 관련 비용은 세전 84억원 (기말배당 계산을 위한 손익 산출 시 동 비용은 가산하여 조정할 예정)

## 06. 이원별 손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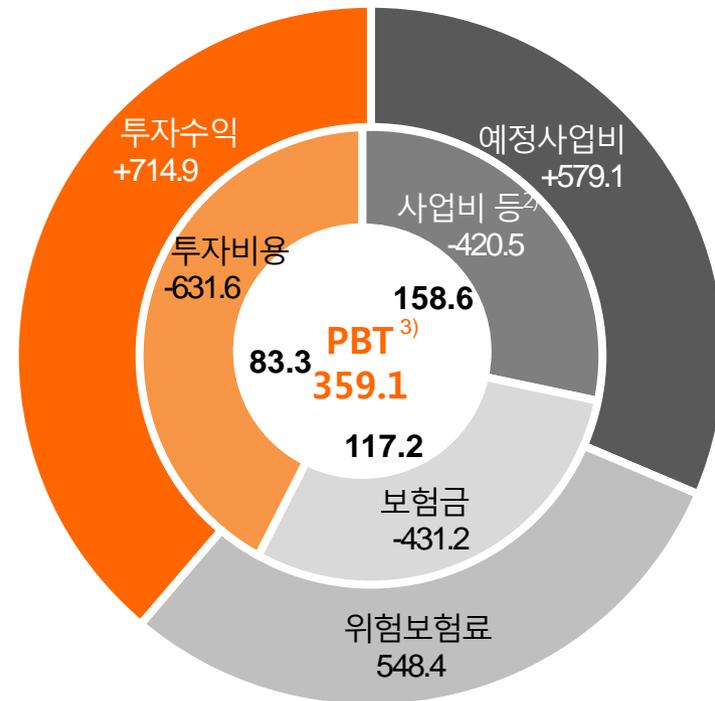
### 분기 손익 비교

(십억원)



### 이원별 손익 분포 (YTD 2018)

(십억원)



주1) 기타손익: 준비금 관련 손익, 실효해약관련 손익, 계약자지분관련 손익 등

주2) 사업비 등: 신계약비 및 유지비 - 기타손익

주3) Profit Before Tax (세전이익)

## 06. 이원별 손익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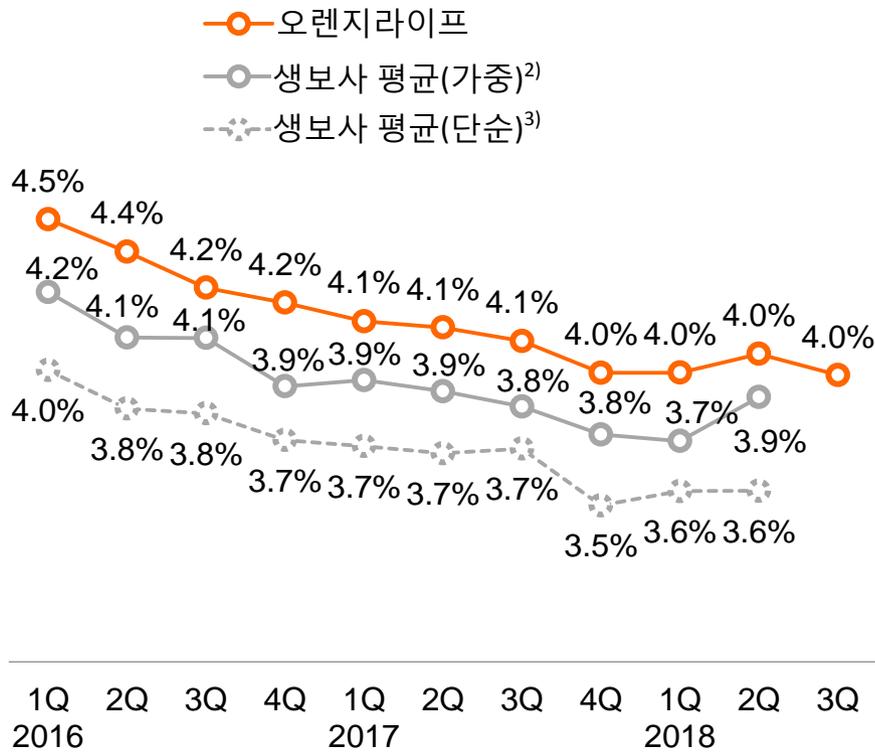
### 균형이 잡힌 이원별 손익 구조

- ✓ 3분기 사업비 및 기타 손익은 전년동기 대비 109억원 감소
  - 리브랜딩 비용(-84억원) 및 변액보증준비금 변동(-134억원 : '18.3Q 2억원 추가적립 vs. '17.3Q 132억원 환입) 효과가 다른 기타손익의 개선(+94억원) 및 리브랜딩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개선 효과(+15억원)를 상쇄
- ✓ 3분기 위험률차 손익은 사망관련 손익(+13억원)과 장애관련 손익(+23억원)이 모두 개선된 가운데, IBNR 및 재보관련 손익 개선(+42억원) 효과가 더해지며 전년동기 대비 +78억원 증가
- ✓ 3분기 투자관련 손익은 전년동기 대비 51억원 감소하였으나, YTD 기준으로는 여전히 103억원 개선된 상황

## 07. 자산운용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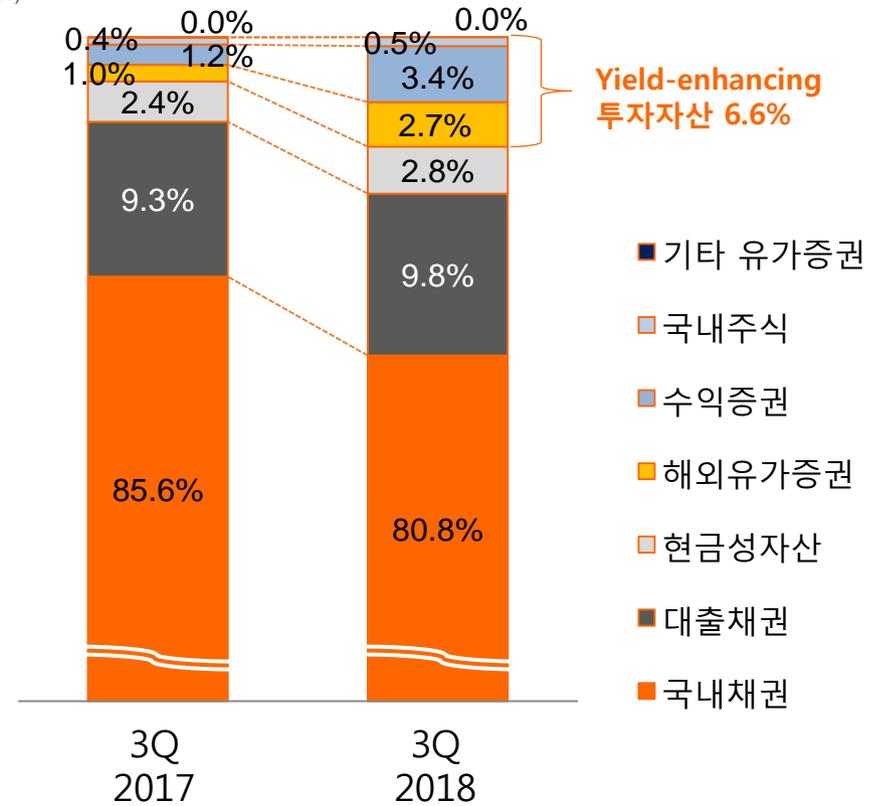
### 운용자산이익률<sup>1)</sup>

(%)



### 운용자산 포트폴리오

(%)



주1) 조정자산이익률(12개월 누계기준):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한 운용자산 기준

주2) 당사 포함 25개 생명보험사(2017년4분기까지) 가중 평균 기준(2018년 1분기 PCA-미래에셋생명 합병으로 총 24개사 기준임), 2018년 3분기 타사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

주3) 당사 포함 25개 생명보험사(2017년4분기까지) 단순 평균 기준(2018년 1분기 PCA-미래에셋생명 합병으로 총 24개사 기준임), 2018년 3분기 타사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

## 07. 자산운용 성과

---

### 운용자산이익률, 업계 평균 상회

- ✓ 3분기 금리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에도 4.0%의 수익률 유지
  - '18.9월말 국채 10년물 금리는 2.36%로 '18.6월말 대비 -20bp 하락
- ✓ 채권금리 하락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신규투자의 어려움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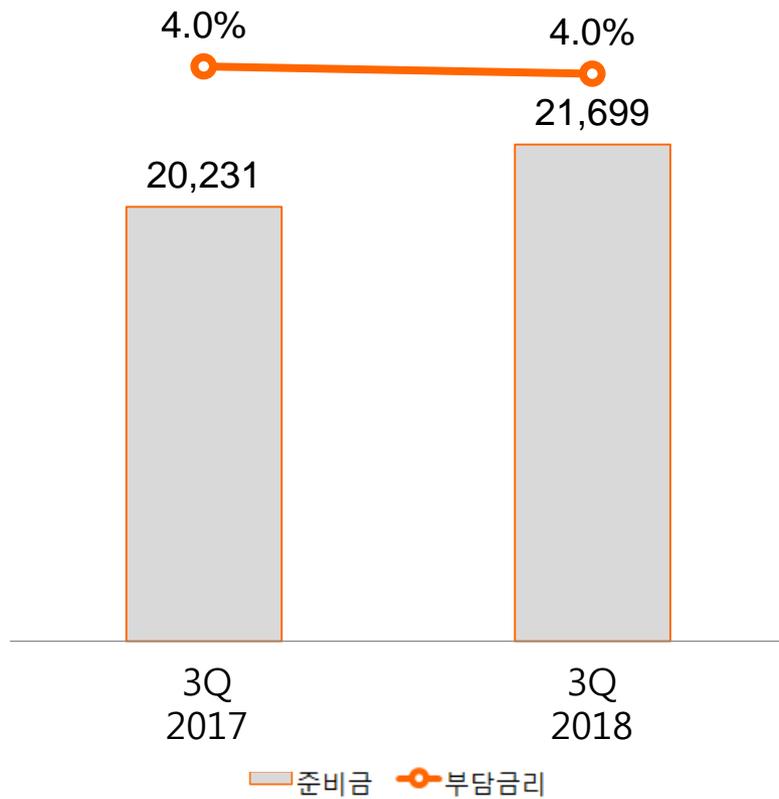
###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

- ✓ 국내 채권 비중은 80.8%로 전년동기 대비 4.8%p 축소
- ✓ 신규투자금리 개선을 위해 Yield-Enhancing Asset 비중 확대 ('17.3Q 2.6% → '18.3Q 6.6%)
  - 해외채권 1,720억원
  - 미국 주식(S&P 500) 900억원
  - 미국 및 유럽 부동산 펀드 450억원
- ✓ 대출자산은 9.8%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대부분 고수익 안전자산인 약관대출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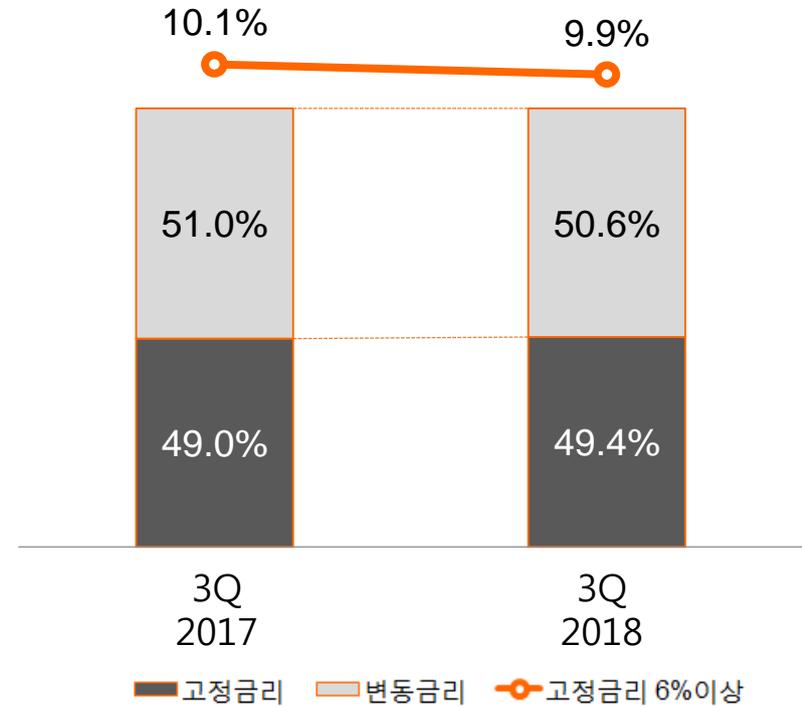
## 08. 준비금 및 부담금리

### 준비금 및 부담금리

(십억원)



### 준비금 구조



## 08. 준비금 및 부담금리

---

### 준비금 부담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

- ✓ 고정금리형 준비금의 평균 부담금리는 신계약 확대에 따른 희석효과로 4.97%에서 4.93%로 4bp 하락
- ✓ 변동금리형 준비금의 평균부담금리는 최저보증 수준이 높았던 과거 판매 상품군의 만기도래 영향으로 3.04%에서 3.01%로 축소
- ✓ 변동금리형 준비금 부담금리는 시장 금리의 변동과 저축상품의 경쟁 및 물량 변화에 따라 달라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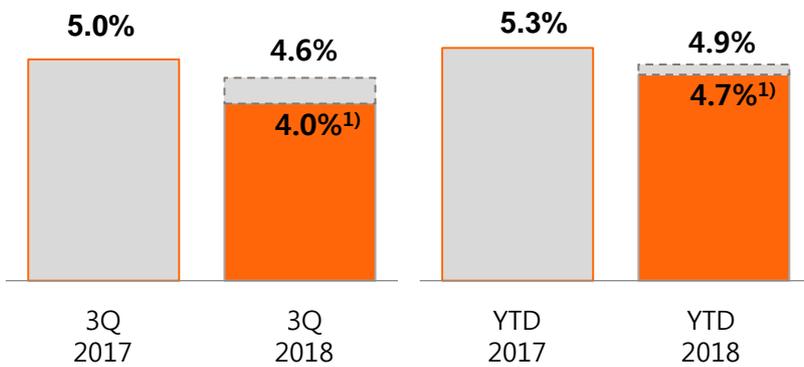
### 건전한 준비금 구조 유지

- ✓ 준비금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50%에 근접하고 있으나, 6% 이상의 고금리 확정 부채 비중은 10% 미만으로 하락

# 09. 효율성 - 사업비율, 손해율, 유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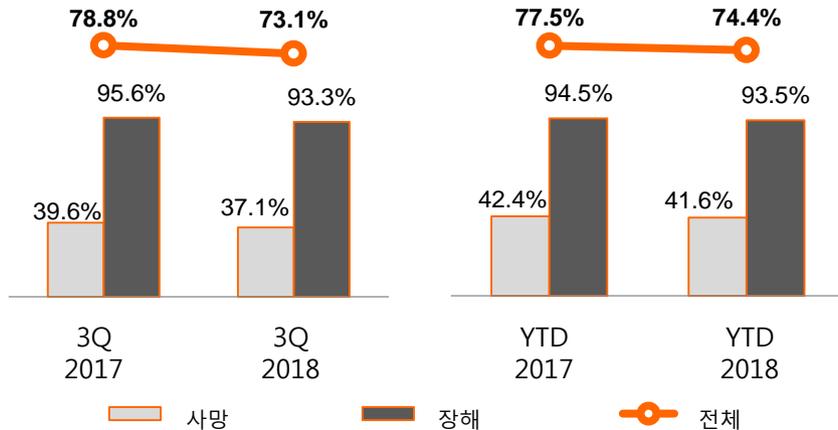
##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

사업비율 (유지비/수입보험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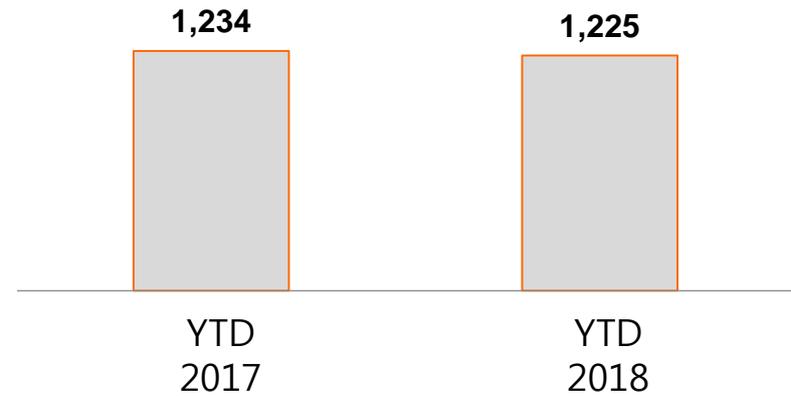
주1) 리브랜딩 비용 제외

손해율 (사고보험금/위험보험료)



## 유지율 및 보유고객수

(천명)



□ 보유고객수 ○ 13회차 유지율 ● 25회차 유지율

## 09. 효율성 - 사업비율, 손해율, 유지율

### 사업비율 / 손해율

- ✓ 3분기 사업비율 4.6%로 하락  
(84억원의 리브랜딩 비용 제외 시 4.0%)
- ✓ 3분기 손해율은 73.1%로 하락,  
YTD 기준 손해율도 전년동기 대비 3.1%p  
개선된 74.4%로 하향 안정화
  - 추석연휴('18년 9월말, '17년 10월초)에  
따른 영업일수 감소에 일부 기인
- ✓ 사망손해율과 장해손해율은 분기별로  
그 추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 
연간(또는 YTD)으로는 비교적 안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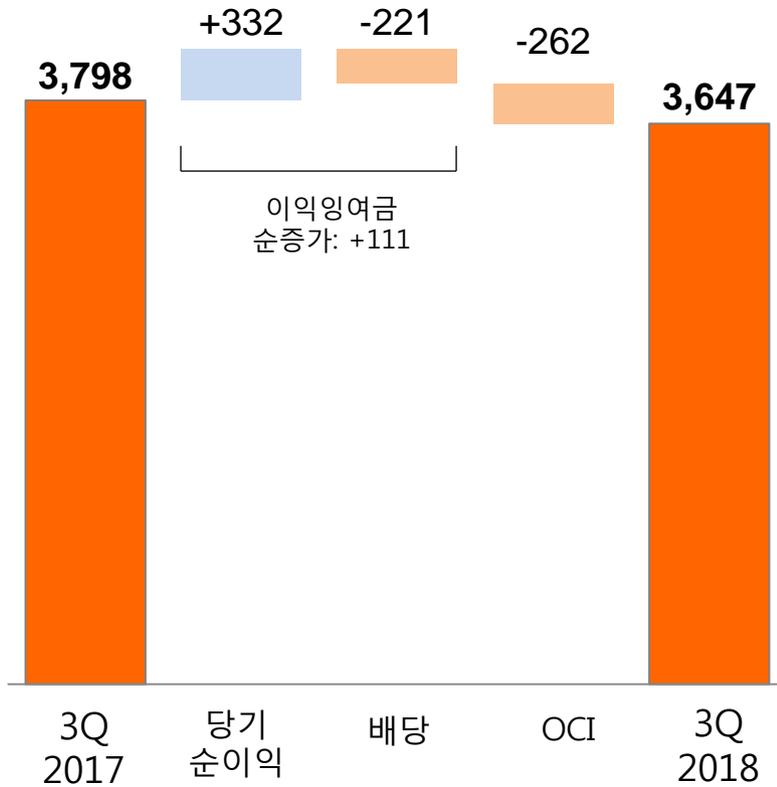
### 유지율 / 보유고객 수

- ✓ 13회차 유지율은 전년비 0.8%p 개선된 80.7%
- ✓ 25회차 유지율은 전년대비 8.8%p 하락한 61.1%
  - '16년 FC 채널에서 판매되었던 고환급률 구조의  
변액상품이 조기 해약되었던 영향  
('17년 13회차 유지율의 일시적 하락을  
야기했던 요인으로 '18년에는 25회차 유지율  
하락 요인으로 작용 중 / 해당 상품은 '17년  
상반기 상품개정을 통해 조치 완료)
  - 1분기부터 나타난 GA 채널의 25회차 유지율  
하락 현상이 지속되는 중  
(GA 채널 진입 시점인 '16년에 초년도 수수료  
비중을 높게 설계하여 판매한 상품이 일부  
GA에서 2년 경과 후 해약이 증가한 때문으로  
수수료의 장기 분납 구조를 도입한 '17년 이후  
판매 상품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진적으로  
개선될 전망)

## 10. 자본적정성

### 자기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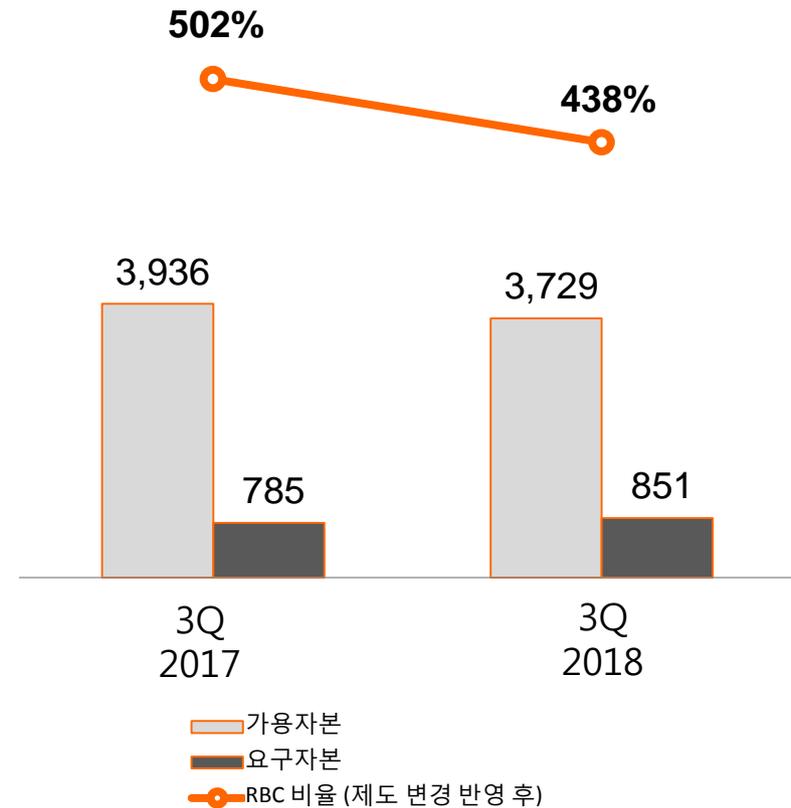
(십억원)



OCI: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### RBC 비율

(십억원)



RBC Ratio: Risk Based Capital Ratio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

## 10. 자본적정성

---

### 배당금 지급 및 금리 상승으로 자기자본 감소

- ✓ 3분기말 자기자본은 '17년 기말 배당금 (1,390억원) 및 '18년 중간 배당금(820억원) 지급이 반영된 것
- ✓ 3분기 ROE는 8.9% (순이익 814억원), YTD 기준 ROE는 9.7% 기록

### 3분기말 RBC 비율 438% (직전분기와 동일)

- ✓ 사업 확대(보장성 신계약 및 자산 다각화) 영향으로 요구자본량 전년대비 증가
- ✓ 가용자본은 이익 실현에 따라 증가하게 되지만 배당금 지급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평가의 감소로 소폭 감소

# 11. 브랜드 소개

## 오렌지라이프 소개



## TV광고



▶ 브랜드스토리 편

▶ 빌딩 편



▶ 자전거 편

▶ 불빛 편



▶ 열정 편

▶ 여유 편

## 12. 향후 실적발표 일정

---

2018년 연간 실적발표는 2019년 2월 예정입니다.

오렌지라이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 되었습니다.  
아래 링크를 통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국문: <https://www.orangelifeco.kr>
- 영문: <https://www.orangelifeco.kr/eng>

